불교계 도움 '감사' 5년간 노고 '위로'

이 대통령 초청 종단협 이사 청와대 오찬

오는 2월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종단협의 주요 이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날 오찬에는 천태종 조계종 원불교 자승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종단협의장 청학스님 태고종 종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종무원장 도성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심사 등 3종단 이사들이 참석했다.

오찬은 이날 대통령의 덕담을 시작으로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오찬에 앞서 차담에서 이 대통령은 "오랜 친분으로 인해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잘 챙겨 계신 스님들은 더욱 추운 날씨일 것 같다"고 안부를 전했다.

오찬에서 조계종 종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5년간 국정에 많은 고생을 하셨다 특히 대통령 국제개발협력 위원장 맡으셨다"며 노고를 위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교계의 도움으로 지난 5년간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열렬 스님들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지난해 해사한 종단협 사무국장은 "사람들의 성격을 보아가는 오랜 이이야기였다"고 이날의 분위기를 전했다.

안지수 기자 jasmin@buligan.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오른쪽)을 비롯한 종단협 임원진이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과 환담하며 정성대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부처님 성불은 일체 중생의 성불입니다"

조계종부산선협회 성도재일 세법회 현장

"이렇도록 나무도 씩씩 자라고 꽃도 스스 날리다 성실하게 장엄한 공덕이 모여 성불하게 된다. 한 중이도 상처를 당하면 천상에 나고 고생하면 도 장하여진다 세월은 흘러 흐르고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함은 인과가 분명하니 상처를 당치 않고이렇게 성불할 수 있도다."

지난 1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 벡스코 컨벤션홀 3층 사부대중 3000여명은 성도재일 대법회 법상에 오른 조계종 원로의원 법장스님의 법문에 귀기울이며 보성스님은 이런 게 그때 정도일 법이 홀 통해 "마음의 경계는 늘 갖추고 중생의 법륜은 소연으로 차별을 하니 누가 수행하고 깨달으리요 라는 게송 말이 할 수 있겠소 "라며 "불자들이여 시간을 소홀히 여겨 헛되이 보내지 마소. 세월은 흐름 같고 꽃보다 젊소. 신 한은 은둔 선정을 닦지 않은 까닭이며 우서는 다만 진실한 지혜가 부족한 때문이리라 불가에 수행과정을 살펴보다.

성도재일법회는 조계종부산선협회장 조계종부산교구장 대원사 불국사 범어사 해인 불인 상좌하에 이어 불인 다. 수인스님은 대원사 사부대 "오늘부터 우리는 선정사가 되어 아함부고 강경했다.

스님은 "삼계 조건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주의 일시를 새롭게 바꾸고 인간의 일시를 새 전개했다며 "이제 우리는 그 성주할 부처님의 정신을 대한 이해 에 당부드리 위해 불교 계 이해 이 일깨우는 이 기거를 불인 사람 그 모두를 우리 선지식 도에 이 한 보고 일깨우 이 인생 상으로 살 의 가치를 불인 사람 그 모두를 구원하고 제도하기 한다고 말했다.

법상사 주지 수불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처님의 성불은 일체 중생의 성불이라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을 뜨신 이래로 오로 중생이 함께 눈을 뜨도록 "이렇게 인류는 어떻게 그래를 뜻에서 한일은 행함과 행복을 구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백했다.

성도재일법회에 이어 경부 봉사로 "도인 방동을 올린 가운데 진 옷을 리다가 됐다 마지막 부산 영주 일깨 수도사 신도 지역으로 출전한 두 팀이 경합을 벌이다 영주팀이 1등으로 방동을 올렸다. 백나경(6세), 랭랭 다희(8세)양이 전주다고, 랭랭 대상 곤 모지환 백씨이 공부도반 김용호(3세, 랭랭 지산)씨로 출전한 팀이다. 전주곤 은 법동을 올리고 난 뒤, "부처님 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장엄해서 양탁히 크고 우리는 게 꿈"이라고 말했다.

"도인 방동을 올리려 는 1등한 팀에 대해 조계종 원로의원 고산스님의 휘호를 수여했고, 동화 그림은 각각 100만원, 50만원 등의 수상금을 전했다.

부산=하동은 기자 tomato79@buligan.com
최원현 부산지사장 chd79@buligan.com

"'갓바위 부처님' 원형 복원자료 발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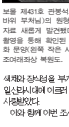
선문사-불교문화재연구소 정밀 조사

갓 부분서 보상화 문양, 무릎도 확인

"정성껏 탱화 한 가지 소원은 들어 주길 는 영험이 시린 보물 제시고 호 진불선조여래좌상(가)바위 부처님의 원형 복원을 위한 자료 새롭게 발견했다.

경산 선불사(주지 여문스님)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스님)는 지난 16일 이날 부터 경산 선불사 성보박물관에 정밀조사를 진행하면서 진불선조여래좌상의 관건으에서 보상화(蓮華)문양의 불상대 일이어 나긴 부좌라 대좌 부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진불선조여래좌상은 불상이 큰 관의 불행한 고장이 긴과 같아 '갓바위 부처님'으로 알려져 있다. 고등 한 진불선조여래좌상(가)의 경은 그동안 지면을 덮은 이끼 가공해 마치에 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불교문 화재연구소의 디지털을 통해 과 첫 면에 보상화로 추정되는 문양이 조각되 있음을 새롭게 확인했다. 관 에 조각된 보상화 문양은 진불선조 여래좌상이 통일신라시대에 새롭게 만시 창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보상화 문양은 연꽃을 모태로 해 꽃잎들을 층층이 중첩시켜 화려한



보물 제431호 진불선조여래좌상(갓바위 부처님)의 원형 복원을 위한 자료 새롭게 발견했다. 사진은 3D 촬영을 통해 확인된 관 뒷면 보상화 문양 사진이라 관련석 조여래좌상 복원도.

새해와 상서로움을 부각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룬 대표적 걸작 사용했다는

이와 함께 아번 조사 를 통해 불상 주변에 덮여져 나간 파편 가운데 옷주름이 있는 부분을 과학적인 방식을 동원해 불상 오른쪽에 부처의 본 결과 왼쪽 불상 오른쪽 부분에 대좌 의 일부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문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진불선조 여래좌상(가)갓 부처님 복원을 새롭게 하고 이 번 조사를 보고서 만들어 보고 관리자들에 활용할 예정이다.

선문사 주지 대문스님은 "이번조사는 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없이 사찰 자체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이례 통해 그 바위 부처님의 원형을 고증하고복 원을 위한 자료를 새롭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것부터 부처님의 학술적,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에 대해 규명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유 기자 chr119@buligan.com

꽃문화 '보급' 지도자 양성 '앞장'

고창군종합복지관 백도리회 강희 현장

큐피 얼굴이 붙고 있는 대한민국 차를 몰아비고 향유에는 인구이 놓아 관리 다도 예법을 배우고 차 한 잔을 통해 이웃과 이야기를 꽃피우랑 들어 있다 지난 8일 오후 전북 고창 에 위치한 고창군종합복지관의 한 강의실 고요함 스러는 은은한 차 (茶)향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나는 차 한잔을 매개로 것은지 실을 갖고 있는 다도도 등이 백도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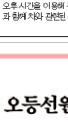
백도리는 고창군종합복지관이 운영하는 것은 과정의 다도 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로 구성했다. 차의 매력에 빠져 들다보니 지난는 쉽게 등이 형식의 모임으로 이어 졌다. 창재는 1기이고기 수료생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이끌고 있다. 백 도리회 회장 강경진씨는 고등을 과는 라서는 "공부보 방의 후 아내를 따라 지난은 쉽게 다도를 정하면서 차 의 매력에 빠져들었다"면서 "쉽게 이해 있어 다도만큼 좋은 생활은 없는것 같다"고 예찬했다.

이들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오후 시간을 이용해 정기적인 모임과 함께 차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다도와 차에 관해서는 서로에게 조력자가 될 만큼 공부가 깊다. 특히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진행되는 전문 다도 강사의 강의는 중국 차가 중심이다. 수업에는 자연스럽고 가볍게만 받아들이. 수업이 끝나면 서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터디 형식이 기업다.

특히 중국 선생 차를 직접 사왔 보고 차의 특징과 성질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고 있다. 차에 대해 조예가 깊은 도반스님은 이들에게 다채로운 중국 선수 자주 차인 장사오 차 등 다양한 다도 예절을 전했다.

서정애 도반는 "현재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해 다도 예절을 전했다고 있으며 복지관과 공동 등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차나눔자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조남지사 · 진재훈 기자



다도문화 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고창군 종합복지관 '백도리회' 회원들이 지난 8일 관장 도현스님으로부터 강의를 받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큰스님 참선 안심법회

禪定의 힘으로 삶의 뜻을 밝히자!

참선 안심 법회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찬란한 광명이신 부처님 말씀을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3일동안 무료로 공부합니다.

불자 여러분! 영생해탈과 운수대통은 자성에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요.

법 회 일 : 2013년 양력1월29일 ~ 31일까지(3일간)

법회시간 : 매일 오후 7시
법회장소 : 부산 롯데호텔 대 연회장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부산불자 모임
연 락 처 : 051-553-5258 / 042-825-1724